

보인고, 학업에 지친 아이들 위한 '즐거운 학교 프로젝트'

B&C 고문순 기자 | 입력: 2014.06.18 16:44

보인고에서 마련한 학교 사랑 이벤트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보인고에서는 학업에 지친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작은 선물로 ‘즐거운 학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생각의 전환을 통해 못한 학생들에게 벌을 주지 말고, 잘한 학생에게 칭찬과 격려를 하며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 규정이나 명령에 의한 행동이 아닌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운영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보인고에서는 특정일을 지정하여 일찍 등교하는 학생에게 간식과 증서를 수여하는 얼리버드, 잔반 없이 깨끗하게 식사한 학생들에게 후식을 제공하는 ‘잔반 없는 날’, 담임선생님과 학급이 같이 밥 먹기, 사까말DAY(사정 때문에 못한 말 까놓고 말하는 날)로 친구, 교사, 학부모에게 평소 말하지 못했던 미안함, 사랑, 감사 등의 감정을 표현하고 신청서를 받아 심사를 거친 후 동영상을 찍어 학급 모니터를 통해 함께 시청하는 날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사제동행 학급행사로 주변 봉사활동, 1박2일 MT, 등산 등을 학급별로 계획하여 사제동행으로 진행하며 ‘선생님을 이겨라 가위, 바위, 보’를 통해 담임교사와의 가위바위보 대결을 통해 소원 들어주기 이벤트, 생일자에 관심을 갖고 소원 들어주기 이벤트로 진행되는 ‘나눔 탄신일’, 일일 담임 바꾸기 등의 활동으로 아이들의 학교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그 결과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학교생활에서 작지만 큰 즐거움을 느끼는 횟수가 늘어나 애교심이 생기고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긍정적인 습관이 생기는 효과를 얻고 있으며 담임교사, 학급 친구들과의 친교의 시간이 늘어나 협동심과 배려심이 생기는 등 뛰어난 인성교육 효과를 거두고 있다.

보인고 측은 “이처럼 학생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 리더십, 기획력, 자기주도성 등을 키울 수 있다”고 전했다.